

【기획의도】

조선 류큐 문화교류 육백년

- 東支那海 문화 교류의 視角 -

고운기*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東支那海의 연안에 결부하여 연구한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물론 일본의 연구자가 중심이 된 것인데,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학자 다수가 참여하였다. 그간의 연구 성과가 집성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宮家準·鈴木正崇 編, 『東アジアのシャーマニズムと民俗』, 勁草書房, 1994

野村伸一 編, 『東アジアの女神信仰と女性生活』, 慶應大學出版會, 2004

野村伸一 編, 『東アジア海域文化の生成と展開』, 風響社, 2015

崔吉城·日向一雅 編, 『神話·宗教·巫俗-日韓比較文化の試み』, 風響社, 2000

왜 東支那海인가? 이 바다는 중국의 福建省과 타이완, 한국의 남부 연안과 제주도, 일본의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중요 통로였다. 대륙을 통한 문물의 전수 못지않게 이 海路가 동아시아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역할했다는 것이다. 위 성과물은 특히 민속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 한양대

졌다.

이제 비교의 시각은 문화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본 학계는 이미 근대 학문기에 오랫동안 오키나와 연구 조사가 시행되어, 비교 연구의 바탕이 튼튼한 데 비해 우리는 일천하고 협소하다. 동지나해를 중심에 놓고 문화 교류의 여러 양상을 연구할 필요는 여기서도 대두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호 기획 논문으로 ‘東支那海 문화 교류의 視角’을 마련하였다.

堂野前彰子は 한국의 고대 대상의 기록물에 등장하는 ‘倭’와 일본의 ‘한국’ 또는 ‘신라’의 용례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밝히면서 교류의 측면에서 의의를 살펴보았다. 『삼국사기』의 처음부터 ‘왜’가 등장하고 있는데, 호공이나 탈해처럼 그 출신을 일본으로 비정할 기록이 있는가하면, 대체로 船團을 꾸려 연안을 침범하는 적대적인 이웃나라로 묘사되었다. 이에 비해 신라를 향한 일본의 인식은 모태회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대 대상 기록물 속 유사함의 배후에서 교류 곧 동지나해를 포괄하는 바다의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일이다.

고운기는 일본(특히 오키나와)의 두 가지 자료 곧 『萬葉集』 첫 번째 노래와 『遺老說傳』 ‘101화’를 가지고 『삼국유사』 ‘수로부인’ 조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일상적인 사건과 신화적인 사건의 복합체로서 수로부인 이야기에는 구애(求愛)의 서정시로서 <현화가>와 용궁 체험의 이면을 그린 <해가>가 동시에 등장한다. 그래서 이를 ‘굿 형식의 서사’로 보아 왔었다. 여기에 분명한 증거를 대기 위해 일본의 고대가요와 오키나와의 설화를 동원한 것이다. 용궁과 같은 다른 세계와의 왕래는 영력(靈力)의 근원이 되며, 신성의 획득이고, 일상세계의 질서로부터 이탈한다. 수로부인 이야기와의 비교는 여기서 접점을 찾는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의 결론은 여성 주인공의 모험담이 『삼국유사』에 실린 우리 고대설화에서도 찾아진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윤주필은 동아시아 문명권의 연구를 위한 적극적인 오키나와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서구 문명권의 대안이 될 만한 유력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거니와, ‘류큐’라고 지칭되는 체제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의 문제는 비단 ‘오키나와학’의 범주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문명권의 중요한 역사적 표본이자 연구 과제로 부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8세기에 활약했던 蔡溫(1682~1761)을 주목하면서 그의 <叢翁片言>을 고찰한 것이다.

<叢翁片言>은 허구적 인물 ‘叢翁’이 불특정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전개 방식은 전체적으로 전통적 한문학 글쓰기로서 寓言의 장르적 특성에 부합하고 있다.

위 3편의 논문은 각각 고대 대상 기록물만으로(堂野前彰子), 그 같은 기록물과 오키나와의 18세기 자료를 교차하여(고운기), 오키나와의 18세기 자료만으로(윤주필) 연구한 차이점이 있다. 상당한 時空의 차이이다. 『삼국유사』는 13세기 고려에서, 『유로설전』이나 <叢翁片言>은 18세기 오키나와에서 문자로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비교의 장애이다. 다만 『삼국유사』에는 13세기에 오키나와의 분위기가, 『유로설전』에는 18세기에 고려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두 기록 모두 각각의 편찬자는 유교적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 전통적인 민간신앙을 인정하고 기록에 남기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주목하기로 하자. 시공의 차이를 극복할 묘한 조건인 셈이다.

문화 전반의 비교 연구를 통한 동아시아의 접근은 동지나해의 海路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각은 잡혔으나 이번의 논문으로 만족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연구를 활성화 하는 데 작은 기여나마

이루어지기 바란다.

追記 : 『열상고전연구』47집의 『조선 류큐 문화교류 육백년』기획은 琉球通信官 李藝가 유구 노예시장에 팔려나간 조선인들을 쇄환하러 1416년에 유구에 파견된 것을 기념하여 준비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 학술대회 지원금을 받아 8월 7일에 개최된 『류큐(오키나와)와 조선(한국)의 문화교류 육백년』 학술대회 연구성과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번 기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2016년에도 조선-류큐 문화교류 육백년 기획을 해보고자 한다.